

“전과자 거른다”... 국민의힘 선관위, 전대 후보 적격성 판단

음주운전·성범죄 등 후보 배제
별도 전과기록 확인 후 컷오프
내달 10일 결정, 3월 양자토론회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기로 했다. 후보자 자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후보자 자격 요건에 맞춰 ‘전과 기록’ 유무를 두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당 선관위 방침이다. 당 선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당 선관위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은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후보나 공식 후보자 공천 시 전과에 대한 기준이 당헌·당규에 있다. 그 기준에서 전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



유홍수(오른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석기 부위원장. /뉴스1

까지 제시한 셈이다. 중앙선관위 공식 후보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

집행유예 선고 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징역형 종료 후 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선관위원들은 이 같은 기준을 통해

추가로 컷오프 하는 방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선관위가 전과를 직접 조회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별도의 제재 방안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앞서 정한 ▲후보자 등록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1월 31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2월 2~3일) 등에 이어 ▲컷오프(2월 10일) ▲합동 연설회 및 방송 토론회(2월 13일부터) 일정도 확정했다.

합동 연설회는 7회, 당 대표 방송 토론회는 4회 열기로 했다. 이번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부터는 제주에서 시작, 수도권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청년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방송 토론회는 1회 진행하는데, 당 유튜브 채널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장 의원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2월 10일까지

컷오프를 하고 2월 13일부터 대략적으로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결선투표 일정도 정리했다. 전당대회 당일 득표율이 50% 넘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 시 ▲양자 토론회(3월 9일) ▲모바일(3월 10~11일) 및 ARS(3월 11일) 투표 순으로 일정을 정했다. 결선투표 최종 당선자가 3월 12일 결정되는 일정이다.

한편 장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동일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는 연장자를 (선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청년 당원을 적극적으로 우대하지는 취지로 연장자로 하는 게 맞는지 논의를 더 하려 한다. 오히려 연소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 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논의도 26일 예정된 5차 회의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또 소환 통보한 검찰... 민주당 ‘단일대오’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위례’ 의혹 설 이후 소환
박홍근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설 이후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가운데,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라부라 물타기용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에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시 내부정보를 받

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수사의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며 야당 탄압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입성문을 통해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수 십명의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하고, 중계를 방불케하는 피의사실공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이 다반사인 검찰독재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송환에 맞춰 이 대표

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선을 그었다. 안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대신 수입료를 받았다는 변호사역시 의혹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허위 자작이란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까지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리려던 궁에 가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병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권력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와 이 대표를 죽이려하는 총체적 권남용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많은 자괴감이 들뿐 아니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성남지청에 소환하지 일주일도 안되는 6일 만에 오는 27일과 30일을 찍어서 하나는 반부패 수사3부, 하나는 반부패 수사1부에 나오는 것은 (검찰이) 먼저 언론에 흘렸다”며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많은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봤다. 이런 일은 없었다. 제야당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 살인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분노해야 한다. 함께 싸우자. 안 되겠다. 이리다다 죽겠다”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이런 시대를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씩만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럴수록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의원들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UAE의 적은 이란” 尹 발언에... 野 “외교참사” 맹폭

민주당 “말실수 한두번 아냐” 비판
대통령실 “한-이란 양자관계 무관
우리 장병 격려차원 발언” 진화나서

취임 첫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나가지만 하면 외교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 측은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이크브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도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

의 안보는 바로 우리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접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전개를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IRNA 통신은 이란 외무부가 한국 정부의 최근 외교적 태도와 이란과 UAE의 관계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하게 발언한 것을 심

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UAE와 시아파 중주국인 이란은 외교적·종교적으로 비우호적 관계인 것은 맞다.

지난 2016년 수니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성직자인 니르르 알 니르르를 처형하자 분노한 이란 대중이 이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관을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고, 같은 수니파인 UAE도 주이란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2017년 UAE는 이란과 우호적인 카타르와의 국교를 단절하면서 ‘국교 복원’ 조건으로 이란과의 단교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고,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UAE와 이란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우호 교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UAE와 이란은 국교를 다시 회복했고, 자국으로 소환됐던 주이란 대사가 이란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당시 UAE 외교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UAE의 노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의전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순방 외교에서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며 “말실수, 외교 참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란에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변명할 것인가.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하다”며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반성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억지 변명으로 유아무야 넘어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기준이 됐다. 이러니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한-이란 양자관계와는 무관하다”며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말이었다. UAE가 당당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도 대변인실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한 바,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익·박태홍 기자 pathfinder@